

김넷과 아트 콘서트가 건네는 서른 번째 선물

광주 대표 복합문화공간 김넷과의 '아트콘서트'가 서른 번째 공연을 선사한다.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마다 대인동 김넷과에서 펼쳐지는 '아트콘서트'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소프라노 김아람 합류, 김넷과 트리오 '오디션' 무대 '음악영재발굴 프로젝트' 주역 오히린 첼로 연주도



소프라노 김아람



오히린 어린이

25일 오후 7시 개최되는 제30회 김넷과 아트콘서트는 김넷과 트리오 3기의 특별무대 등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지난해 결성된 제3기 김넷과 트리오는 지역 유일의 민간 후원 클래식 그룹으로 일년 동안 김넷과에서 아트콘서트를 진행해왔다.

매년 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트리오를 결성한 김넷과는 올해는 4기 대신 기존 트리오의 활동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넷과 트리오 3기의 이번 공연 주제는 '오디션'이다. 처음의 열정을 갖고 관객들 앞에서 오디션 치르는 과정을 공연으로 선보이는 것. 각 단원들은 오디션을 보듯 각각의 곡을 연주하고 다시 선보이는 과정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앞으로의 일년을 다짐한다.

또한 이날 공연은 소프라노 김아람이 합류, 트리오의 한계를 보완해 '김넷과 트리오 스페셜팀'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의미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김아람은 호남신학대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팜페라 레디스의 리더이자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이다.



김넷과 트리오 3기

소프라노 김아람은 이번 공연에서 윌리엄의 곡 '마중'과 벨리니의 'Oh! quante volte, oh! quante (아! 몇 번인가)'를 선보인다.

아울러 지역의 실력 있는 음악영재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도 이날 새롭게 선보인다. 김넷과 후원회장이자 지역 메세나 활동가인 박현택 영무토건 대표의 특별 제안으로 성사된 '김넷과 영재발굴 프로젝트'다.

영재발굴 프로젝트에 선발된 오히린 어린이가 하이든의 'Cello Concerto No 1 in major' 곡으로 아름다운 첼로 선율을 들려준다.

오히린 어린이는 왕운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모차르트 콩쿨 광주지부 1

등, 호남예술제 은상 등을 수상했고 9월에는 쿠아라오케스트라 협연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아트콘서트가 열리는 2층 공간에서는 손지원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지하와 1층 공간에서는 최나래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두 작가 모두 김넷과 레지던시에서 작업하는 청년작가들이다.

박현택 대표는 "김넷과가 지역의 실력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연과 함께 두 작가의 작품을 둘러보면서 김넷과 아트콘서트를 두 배로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아트센터 나비 20년사로 본 기술과 예술의 융합

오늘 G.MAP 미디어아트 아카데미 2강

'뉴미디어아트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 G.MAP은 25일 오후 2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2층 컨벤션홀에서 미디어아트 아카데미 강좌 '뉴미디어아트의 NFT까지'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아카데미 제2강은 노소영(사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강의로 진행된다.

노 관장은 이날 강연에서 대한민국 최초 미디어아트센터이자 디지털아트 전문기관인 아트센터 나비의 20여 년의 역사 속 기술과 예술의 융합에 대해 다룬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재개관 이후 AI와 인간의 상호작용 연구, 게임·AI 아트페스티벌, 간송미술관과의 협업작업 '헤리티지 NFT' 등 예술과 기술의 융합형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선보여왔다.

이번 강연은 아트센터 나비가 인공지능 기술을 탐구하고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과학기술 기반 매체예술의 새로운 가능성과 문예제를 비롯한 비판적 시각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노 관장은 서울대 공과대학 재학 중 미국으로 건너가 윌리엄 앤 매리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시카고대학 경제학 박사과정을 거쳐 스탠퍼드대학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연세대 영상대학원



등에서 수학했다. 1997년 위귀힐미술관 2대 관장으로 취임해 이곳을 2000년 '아트센터 나비'로 재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그는 20년간 나비를 운영하며 기술의 인간화를 끊임없이 성찰해왔으며 감성로봇 제작, 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등 기계 문명하에서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한편, 미디어 아카데미 강좌는 오는 10월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G.MAP 2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다. 90명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한다.

전 강좌는 전화 예약 (062-613-6124-5), 개별 강좌는 매주 강좌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김주원 '판소리 다섯바탕 눈대목' 공연

오늘 빛고을국악전수관

젊은 소리꾼 김주원(사진)이 들려주는 판소리 다섯바탕 눈대목 발표회가 무대에 오른다.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은 25일 오후 7시 목요일국악한마당에 소리꾼 김주원을 초청해 공연을 펼친다.

김주원이 부를 판소리 다섯바탕 눈대목은 박봉술제 적벽가 '새타령', 미산제 흥보가 '두 손 합장', 미산제 수궁가 '좌우나올-말을 허라니', 보성소리 춘향가 '십장가', 강산제 심청가 '심봉사 황성길 올라가는 대목'이다. 약 1시간20분 가량 대목들과 관련된 일화를 함께 이야기하며 부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2017년 올려진 심청가 발표회 이후 5년 만에 올리는 개인 발표회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다섯 바탕의 눈대목을 김주원만의 색깔로 진심을 담아 시원한 소리로 채워나간다. 목직하고 힘 있는 소리꾼 김주원의 다양한 눈대목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날 공연에 함께 할 교수는 올해 광주 박동진명창·명고대회 명고부 장원을 수상한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전수가 송대의 씨가 말한다.

한편, 소리꾼 김주원은 명창 방수미 선생에게 강산제 심청가, 미산제 수궁가와 흥보가, 보성소리 춘향가를 사사 받고 있으며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중앙대 전통예술학부를 졸업했다.



전서 초대 공연이며, 유튜브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62-350-4557. /최명진 기자

'띠리띠리 컴퓨터 세상' 국립광주과학관, 기획 전시

국립광주과학관, 기획 전시

국립광주과학관은 서울상상나라와 함께 어린이의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의 발달을 돕기 위한 '띠리띠리 컴퓨터 세상' 기획 전시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코딩의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자신의 나이를 이진법으로 표현해보는 등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명령어, 순서도 등의 원리를 쉽게 알아갈 수 있는 전시다. 특히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메인보드에 끼워보며 컴퓨터 원리를 알아보는 '서로서로 연결해요', 이진법을 익힐 수 있는 '0과 1로 만드는 내 나이' 전시품 등에 관람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명진 기자

한국학호남진흥원, 근현대 역사사진 공모

호남권 지역인 대상...1970년대 이전 사진 제출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은 근현대 호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근현대 역사사진 스토리아카이브' 사업을 위한 역사사진 공모를 추진한다. '근현대 역사사진 스토리아카이브'는 21세기 현대화의 발전으로 사라져가는 훌륭한 호남문화 유산을 보존·정리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은 고문서류 수집·보존·정리 및 호남 선현 시문집 국역을 위주로 한 주요사업에서 벗어나 사진을 이용한 새로운 기록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

됐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권 지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건물이나 골목 등 1970년대 이전 호남의 역사가 담긴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천득염 원장은 "근현대 역사사진 스토리아카이브를 통해 호남의 역사를 기록문화로 구축할 예정이다"며 "호남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다양한 근현대 사진 자료를 공모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